기억의 지속

홍경한의 시시일각

꿈과 환상, 무의식 세계와 이성과 비이성이 결합된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현실을 넘어선 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예술 및 문학 운동이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이 쓴 《초현실주의 선언》(1924)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립됐다.

이 운동은 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의 불안정한 사회와 문화적 변화 속에서 탄생했다. 다다이즘(Dadaism)과 프로이트(Sigmund Freud) 정신분석학의 영향에 따라 기존의 논리적 사고와 전통적인 예술 규범을 탈피하려 했으며,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통한 '새로운 현실' 창조에 주력했다.

1931년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는 그의 대표작 '기억의 지속'(The Persistence of Memory)을 완성했다. 이 작품에는 녹아내리는 시계와 개미떼, 어두운 그림자로 덮인 땅과 앙상한 나뭇가지, 그리고 황량하면서도 몽환적인 풍경이 하나의 화면에 새겨져 있다.

치즈(Camembert)가 흐느적거리며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치즈가 녹아내리는 것과 시계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비논리적 상황과 부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초현실주의적 감성이다)는 이 그림의 배경은 비현실적이다. 이는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나타내며, 덧없고 무력한 현실을 뜻한다.

녹아내리는 세 개의 회중시계는 이 작품의 핵심이다. 제 기능을 상실한 시계 속에서 단단하고 규칙적인 선형적 개념으로 여겨지는 시간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이는 시간의 상대성과 인간 저마다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복잡함과 가변성을 암시하면서 시간의 의미조차 잃어버렸음을 가리킨다.

특히 주황색 시계 위에 모여 있는 개미와 그 옆에 놓인 시계의 파리는 부패와 죽음의 은유다. 스토아 철학(Stoicism)과 허무주의, 흑사병과 종교개혁, 황금시대를 구가한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장과 세속적 탐닉, 중부유럽 최초의 전쟁인 30년 전쟁(1618~1648) 등의 여러 역사적, 문화·종교적 흔적을 배경으로 하는 바니타스(Vanitas) 정물화들이 그러했듯, 이는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호들로 채워진 '기억의 지속'은 절대성을 벗어난 시간이 저마다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비선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과 이성을 관장하며 바깥세상의 흐름을 구속하는 시계가 맥없이 축 처져 있다는 건 '시간 개념의 붕괴'를 뜻한다.

시간은 인간의 기억과 존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이 현재의 선택을 결정짓지만, 현재의 해석이 과거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의 개념이 붕괴되거나 사라진 채 지금의 순간만이 전부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연속성이 없는 세계라면 기억은 어떻게 작용하며 '영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기억의 지속'은 치열하게 혹은 처연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잠시나마 시간 없이 존재하는 방식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시간과 기억을 축으로 인간은 무엇에 의지해 삶의 의미를 정의할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명화 한 점에 숨겨진 이야기다.

/미술평론가

헌정사에 이런 여당이 있었나

기자 수첩

서 예 진 〈정치경제부〉

이상하다. 야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상한 건 여당이다. 차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가, 여당이 뭘 해도 부각되지 않는 것이 나아 보일 지경이다. 그저 '당원게시판'이 여당면 장식할 뿐이다.

심지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설전까지 벌어졌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봉숭아학당' 시절이 생각난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무엇인가.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당원들만 작성할 수 있는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내용이다.

당을 막론하고, 당원게시판이라는 공간은 원래 수위 높은 비난이 날 것으로 오간다. 다만 특정 당원이 여론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글을 올렸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혹은 한 대표나 가족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것들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논란의 양상이 점점 계파 간 갈등으로만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과 댓글을 통해 해당 논란을 확대 재생산 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일부 계파는 거기에 편승해 한 대표를 몰아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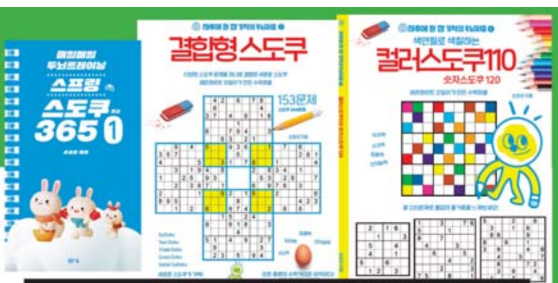
한 대표 측의 대처도 어설펐다.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위법성 여부 등을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기 전에 위법성을 먼저 언급하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논란이 2주 가까이 계속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수년간 국회에 출입하며 봐왔던 보수정당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야당 관계자가 "10년 전 새누리당은 정말 무서웠다"고 회상할 정도로 기율이 엄정했고, 필요할 때 뭉쳤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해도, 이슈 파이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심지어 이날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대표와 최고위원 간 설전이 더 관심을 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뉴스도 안 보는데, 당원게시판 갖고 드잡이질 중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헌정사에 이런 여당이 있었나 싶다.

/syj@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1	7		3	
	6	5						2
							4	
					1	7	6	9
5								8
4	7	1	9					
	3							
9						6	7	
	1		3	6	5			

			5	2	7	9		6
4			3					5
					9			
							1	
1	5	4				2	7	8
	3							
			1					
5					6			1
8		1	4	5	2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1	8	5	2	7	9	4	6
4	6	9	3	8	1	7	2	5
7	2	5	6	4	9	1	8	3
9	8	6	2	7	5	3	1	4
1	5	4	9	6	3	2	7	8
2	3	7	8	1	4	5	6	9
6	7	3	1	9	8	4	5	2
5	4	2	7	3	6	8	9	1
8	9	1	4	5	2	6	3	7

8	4	9	2	1	7	5	3	6
7	6	5	4	9	3	1	8	2
1	2	3	6	5	8	9	4	7
3	8	2	5	4	1	7	6	9
5	9	6	7	3	2	4	1	8
4	7	1	9	8	6	3	2	5
6	3	4	8	7	9	2	5	1
9	5	8	1	2	4	6	7	3
2	1	7	3	6	5	8	9	4

오늘의 운세

11월 26일 (음 10월 26일) http://www.saju4000.com

쥐 — **36년생** 사랑도 능력을 봐가면서. **48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왔으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60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2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데. **84년생** 부자라면 입은 닫고 돈지갑은 풀어라.

소 — **37년생** 현재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49년생** 말이 앞서지 말고 행동으로 쌓도록. **61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3년생**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85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평보다는 미리 거절.

호랑이 — **38년생** 어디를 가나 스승은 있으니 겸손하라. **50년생**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면 사고도 적다. **62년생** 외출 시 핸드폰을 잘 챙겨가도록. **74년생** 상대의 교만에 마음이 상해도 진솔하게 대할 것. **86년생**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자제.

토끼 — **39년생** 어려운 일은 동료의 도움으로 해결. **51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의 뜻을 존중. **63년생** 관절 질환이 걱정된다. **75년생** 식구는 내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니 잘 챙겨라. **87년생** 막내라서 80세 산수(傘壽)를 넘은 부모님 생각이 난다.

용 — **40년생** 옛 은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52년생** 도덕적 경쟁이 발전의 밑거름. **64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76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지녀라. **88년생**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우.

뱀 — **41년생**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 **53년생** 힘든 끝 지점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격. **65년생** 화려한 옷을 입어보고 마음을 밝고 화사하게. **77년생** 묵었던 일이 순조롭게 풀려간다. **89년생** 재산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기나 해결한다.

말 — **42년생** 눈에 띄려하지 말고 말조심. **54년생** 지혜는 차이가 있겠으나 부모님의 큰 선물. **66년생** 말 날 상강이니 안질에 유의. **78년생** 친구라도 자식의 부부 일에 간섭하면 도리어 화근이. **90년생** 동료들을 선동하여 도당을 만들지 말아야.

양 — **43년생** 오전부터 오늘을 알차게 보내자. **55년생** 이성보다는 업무에 중심을 둘 것. **67년생** 직장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부류를 경계. **7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술은 오래된 것이 좋다고 했는데. **91년생** 지식을 유용하게 쓰니 좋은 일이다.

원숭이 — **44년생** 문제해결의 열쇠는 불평하지 않는 것. **56년생** 주변을 이간질에 동요되지 마라. **68년생** 꽃이 아름다워도 소나무의 푸름에 미치지 못한다. **80년생** 미팅 때 붉은색 옷이 행운을 가져다준다. **92년생** 진퇴양난이라도 2시 이후 길이 열린다.

닭 — **45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다시 도전하라. **57년생**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중하게. **69년생** 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베풀어라. **81년생** 무슨 일이든 계획을 하지도 않고 결론 내리려 하지 말도록. **93년생** 작은 것을 양보하다 보면 큰 것이 온다.

개 — **46년생**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한 결과는 본인 것이다. **58년생** 폭풍이 오니 원행은 금물. **70년생** 변화가 와도 서두르지 말 것. **82년생** 견물생심이라 백화점가면 돈을 지출하게 된다. **94년생** 눈에 보이는 부적절한 만남은 스스로 만들지 말도록.

돼지 — **47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59년생**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젊음이 있으니 기술연마에 전력. **71년생** 분노가 치밀어도 분을 참아야. **83년생**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95년생** 승부수를 던지려면 요령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도록.

김상회의 四季

스트레스 대처법 ①

"피하려 하지 말고 부딪혀라!"무릇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苦), 즉 괴로움이다. "사는 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 왜 괴로움이라고 하지요?"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즐겁다고 생각해도 그 감정과 느낌이 계속되지 않는다. 아무리 산해진미가 쌓여 있어도 배가 부르면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서 상상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스트레스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같은 문제라도 사람들마다도 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나 민감도도 다르다. 누군가는 돈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만, 누구는 명예문제가 결부될 때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오던 여배우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 평소 너무 바빠 잘 쉬지도 못하던 상황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았던 중 순간 급성으로 혈당이 높아진 상황에서 쇼크가 온 것이라고 한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고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일이기는 하나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트레스'는 어디든 빠지지 않으니 마음이 힘들면 당연히 몸에도 영향을 준다. 근심이 생기면 밥맛이 뚝 떨어지다 못해 위까지 아파져 오는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는가. 그래서 유념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어떤 감정이든지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비난과 칭찬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왜? 항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칭찬과 비난에 감정이 빠져버리면 외부의 판단에 놀아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지적했듯 한 번 맞은 화살을 두 번, 세 번 맞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떨어져서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좋고 싫든 감정의 체감도가 약화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